

WDAK 회장 세계 춤의 날 인사말

존경하는 세계무용연맹 한국본부 고문님, 자문위원님, 그리고 여러 이사님들께 따뜻한 인사와 함께 안부를 전합니다.

오늘은 유네스코 산하 국제극예술협회(ITI)가 지정한 '세계 춤의 날'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매년 4월 29일은 프랑스의 무용가이자 안무가인 장 조르주 노베르(Jean-Georges Noverre)의 생일을 기념하여, 1982년 유네스코가 공식적으로 세계 춤의 날로 제정한 뜻깊은 날입니다.

이 날은 단지 무용을 기리는 데 그치지 않고, 전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춤을 존중하고, 춤이 지닌 문화적·예술적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는 날입니다. 동시에 춤이 인간의 삶과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널리 알리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세계 무용계는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간의 중동 분쟁 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불안정해지면서 예술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문제의 대두로 인해 무용교육 현장에서도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이 커지고, 이로 인해 유능한 무용 교사들이 현장을 떠나는 사례가 유럽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정치·경제·사회적인 분위기의 변화 속에서, 젊은 세대들이 어려움이 따르는 일이나 제도적으로 제한된 활동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무용 교육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날의 상황을 장 조르주 노베르가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합니다. 그가 무용을 통해 꿈꿨던 세대 간 갈등의 해소, 그리고 세계 평화를 통한 국제적 이해 증진이라는 이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올해 세계 춤의 날 메시지를 전할 인물로 세계적인 발레리노 미하일 바리시니코프(Mikhail Baryshnikov)가 선정된 것은 무용계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메시지를 통해, 춤은 기쁨과 슬픔, 절망의 감정을 공감하게 하며, 온화함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쟁과 정치적 혼란 속에 고통을 겪는 이들이 무용을 통해 말하지 못한 진심을 표현하고, 공동체와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전 세계인들에게 깊은 공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미하일 바리시니코프가 더 일찍 선정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그가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 또한 큰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 모두가 춤이라는 예술 안에서 잠시나마 평안과 위로를 얻길 바랍니다.

모든 무용인들이 오늘을 축하하며, 오늘이 세계 모든 이들의 생일이 되는 날이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29일
세계무용연맹 한국본부 회장 김공수 드림